

민주당 ‘청년플랫폼’ 가동… “소외된 시민 이야기 경청”

이 후보 MZ세대 소통 지원
다양한 시민 이야기 정책 반영
“듣는게 아닌 들으러 가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연일 MZ세대를 만나며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자 직속위원회인 청년플랫폼(가칭)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후보의 MZ세대 공략 지원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을 비롯해 게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지역 청년과의 만남,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간담회 등 연일 청년세대와의 다양한 주제로 소통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 내 2030 청년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청년플랫폼 활동 개시는 특히 대선 초반 정국에서 청년세대에 지지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후보 선대위 권지웅 부대변인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리스너 프로젝트’ 게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올리기 위해 접촉을 늘리고 있는 이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청년플랫폼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청년플랫폼-리스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핵심은 ‘그냥 듣는다’가 아닌 ‘들으러 간다’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플랫폼의 첫 리스너 프로젝트는 이 후보와 함께 공개모집으로 모인 300명의 청년 리스너들이 세대와 지역의 구분 없이, 대선 기간인 3개월 동안 매달 10명의 시민들을 만나며 약 1만여 명을 목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리스너 프로젝트는 2017년 프랑스에 마누엘 마크롱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청

년 5000명과 함께 시민 2만3000명을 심층 인터뷰하며 돌풍을 일으킨 ‘그랜드 마르슈’(위대한 행진)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청년플랫폼은 향후 리스너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정책본부와 연계해 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터뷰 현황을 실시간 현황판으로 공유하며 이 후보의 정책과 메시지, 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리스너들이 직접 발로 뛰며 발굴된 정책 혹은 사례는 정기 콘텐츠로 홍보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권지웅 부대변인은 “시민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SNS나 온라인에서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며 “최근 더 이상 보살필 수 없어 아버지를 떠나보낸 청년 이야기같이 적어도 다음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줄이는 정부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인터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권지웅 부대변인은 “확

정되지는 않았지만 리스너들이 만난 시민 중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게 좋겠다거나, 후보가 직접 가면 좋겠다는 분이 있다면 후보와 이야기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이 오픈 사흘 만에 1000만 페이지뷰를 달성하는 등 화제가 된 가운데, 청년플랫폼은 이에 맞설 온라인 플랫폼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윤 청년대변인은 17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청년의 꿈’을 잘 보고 있지만, 민주당의 청년플랫폼은 결이 좀 다르다”며 “리스너 프로젝트의 지난 인터뷰에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아 정리하는 상황이고,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결과를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온라인은 또 따로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다양한 선거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尹 선대위 인선 막바지… 3단계 지휘체계 구축

김종인 前 비대위원장 선대위 총괄 유력
정책 등 4개 분야 총괄본부장 배치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이 막바지 속도전을 내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종 선대위 구성안을 보고 선대위 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선대위는 큰 틀에서 총괄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 등 3단계 지휘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총괄선대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관례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추가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은 김기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금태섭 전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중진급 정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천안함 유족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16일) 나 전 원내대표와 원 전 지사를 만나며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윤 후보는 약한 고리를 공략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을 위해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와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있던 총괄선대본부장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선대위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준표 선대위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임명됐던 총괄선대본부장은 후보의 측근이 주로 맡아왔다.

윤 후보 선대위는 총괄선대본부장을 생각하는 대신, 정책·조직·기능·홍보 등 4개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병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 조직도는 4개로 만들었지만 네모칸이 하나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함에 따라, 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캠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공석이 된 비서실장 자리엔 아들 문제로 캠프를 떠난 장제원 의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윤한홍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文 대통령, 지원금 등 정치권 갈등 침묵

국내외 일정 주력… 선거 의식 분석도

방역지원금, 세 부담 완화 등 민생 현안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 갈등에 침묵하고 있다. 내년 3월 있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 지원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통령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지난 16일 리처드 해택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같은 세계 주요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냈다. 지난 1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 LNG선 ‘코랄 숲’ 출항·명명식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후 격려사를 하고 있다.

했으며 11일에는 2021 K-박람회(11일), 12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의 등 국내외 일정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여당이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을 두고 정부와 다투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관망하는 모습이다. 이에 청와대도 “당·정 간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낸 상황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안철수 “준모병제 등 군 복무 혁신”

청년공약 2호 기자회견
“병영생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두 번째 청년 공약으로 “준모병제와 한국판 탈피오트 군대로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이 청년들에게 불신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이 “모두 국가의 잘못”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

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고 일반 병사의 수를 대폭 줄이는 준모병제 도입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탈피오트’ 부대를 벤치마킹해 군대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구축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상 말씀드린 공약들이 실현되면 이제 군 복무는 잃어버린 시간,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 복무 관련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뀔 것”이라며 “저 안철수는 군 병력 재구조화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

尹 “천안함, 북한에 의한 폭침 명백”

윤 후보 천안함 생존자·유족 만남
“정치논리로 들어오면 안되는 영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생존자를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자부심과 명예감을 안겨주진 못할망정 그분들이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진영 문제를 떠나서 정치로 들어오면 안되는 영역”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0년 3월 26일 당시, 백령도 서남방 2.5km해상에서 경계임무수행중이던 대

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을 만나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생존 장병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인사 불이익 등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인 것이 명백하다”며 “국적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느냐에 많이 좌우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박태홍 기자